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3	·	·	·	3
신 문	3	·	·	·	3
TV(방송)	·	·	·	·	·
기 타	·	·	·	·	·

경기도소방
화성소방서

언 론 보 도 사 항 목 차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여름엔 벌집 겨울엔 화재와 씨름... 가장 힘든건 일부 시민들의 항의	중부일보	005	1
2	화성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안전 컨설팅 실시	도민일보	·	2
3	화성소방서, 중점 불의 고을 화성, 작년 634건 전국 1위 도내 구급대원, 하루 평균 1849회 출동	경인일보	006	3

중부일보

2020년 1월 1일 수요일 005면 종합

여름엔 벌집·겨울엔 화재와 씨름… 가장 힘든건 일부 시민들의 항의

국가직 소방관 시대 제종윤 화성소방서 향남119안전센터장

경기도에서 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곳. 바로 화성소방서다. 영화 장면처럼 라면만 끓이면 출동이 걸리는 징크스는 없지만, 식사를 제때 하기 힘들 만큼 점수되는 신고가 많다. 직원들에게 희망근무지를 물으면 '화성소방서만 빼고 어디든 괜찮다'고 답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제종윤(57) 화성소방서 향남119안전센터장은 이곳에서 현장을 누비는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부터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제 센터장은 화재진압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시작은 친구의 권유였다. 학창시절 운동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친구 눈에 띄었다. 그렇게 시작된 소방관 생활이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 중 20년을 출동이 많기로 소문난 안산에서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에게만큼은 늘 안전주의를 강조한다. 제 센터장은 "불도 결국 소방관이 있어야 끌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한다"며 "몸이나 정신도 경직되지 않도록 편안한 센터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도 높은 훈련보다 휴식과 놀이를 병행하는 쪽을 선호한다. 과거 소방서에서 팀장을 맡았던 그는 팀원들에게 훈련 대신 탁구를 치게 했다. 훈련만큼 피로가 쌓이진 않으면서도 체온은 유지돼 긴급한 출동 순간에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제 센터장의 '탁구교실' 덕에 하나 둘 탁구채를 잡았다. 결국 그가 아끌었던 팀은 6개월간 무사고를 유지했다.

제 센터장은 화성소방서에 자리 잡은 뒤에도 안전사고를 특히 경계하고 있다. 화성지역은 전국 최다 수준으로 출동이 걸리는데다, 화재 대부분이 진화가 까다로운 공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화성소방서가 전국 최다 출동 소방서라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화성소방서 대원들의 출동 건수는 2017년 3천800여 건, 2018년 3천800여 건, 2019년 4천200여 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수천 건을 기록한다.

불도 많이 난다. 2017년 629건, 2018년 573건, 지난해에는 631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수백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공장화재가 많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 절반 이상은 주택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공장이 곳곳에 분포돼 있는 화성에서는 공장에서 나는 불이 더 많다.

문제는 공장화재는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공장을 짓는 추세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콘크리트나 벽돌 대신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다. 샌드위치 판넬은 열에 약해 불에 쉽게 녹아내리고, 불길이 그 틈을 비집고 옆 공장으로 옮겨 붙으며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곤 한다. 화성지역 공장 90% 이상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제 센터장은 "공장화재는 주택화재와 달리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 블본 그것조차 쉽지 않다"며 "화성공장은 농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서 진화가 까다롭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소방서의 겨울철 화재 키워드가 '공장'이라면, 여름철 키워드는 '벌집'이다. 화성지역 수많은 공장 처마 사이로 벌집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만 10건씩 벌집제거 신고가 들어온다. 제 센터장은 "여름엔 하루 종일 벌집을 제거하러 다녔는데 겨울이 되니 공장에서 나는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다"며 "아무래도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이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원들에게 잦은 출동보다 힘든 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과의 마찰이다. 긴급하고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간혹 일부 시민들이 소방관의 통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방관이 왜 지시를 하냐고 따져 묻기도 한다. 제 센터장은 "예전에는 시민 분들이 경찰이나 소방의 통제를 잘 따라주셔서 소방관은 불을 끄고 구조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다르다"며 "동선에 맞게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구조 과정에서 훈수를 두는 분들도 계셔서 가끔씩 힘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시민들이 현장 상황을 촬영해 곧바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소방관의 구조활동 등을 촬영한 뒤 대응이 미숙했던 부분을 편집해 영상을 업로드한다. 소방관은 진화나 구조 과정에서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악의적으로 촬영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소방관들은 현장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 센터장은 "공장화재만 예를 들어도, 불이 난 공장을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공장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선 자신들의 공장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항의하시기도 한다"며 "하나씩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긴급한 상황이어서 여건도 안 되고 사기가 떨어질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불을 끄기 싫어하는 소방관은 없으니 시민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 센터장과 함께 화성시 사고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향남119안전센터 3팀 최진솔(25) 소방사에게도 화성소방서는 특별하다. 근무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최 소방사는 불 끄는 방법과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배우고 있다. 최 소방사는 "출동 현장에서 마주한 시신의 촉감이나 냄새가 기억나기도 한다"며 "그럴 때마다 운동을 하며 정신건강과 체력을 모두 단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에 남는 출동으로 한 공장화재 사고를 떠올렸다. 최 소방사는 "공장에서 불이 나며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의 사망 이유를 놓고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 놀랐다"며 "소방관이 되기 전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라서 참 안타깝고 또 오래 기억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에는 소방관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최 소방사는 "현재 화재진압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며 "그 일환으로 2020년에는 특수차 운전을 목표로 관련 공부와 실습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제 센터장은 2020년 복표로 다시 한번 대원들의 무사고를 기원했다. 그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4건 중 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할 만큼 가장 많고, 화성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듯 출동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안전사고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제 센터장은 "화성소방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기피 근무지라는 불명예도 있지만, 2020년에는 직원이 한 명도 다치지 않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센터에서는 대원들의 안전을 챙기고, 밖에서는 시민들에게 소방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 센터장은 "평소에도 소방 홍보 교육을 자주 다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며 "올해도 화성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든든한 화성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경기도에서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화성소방서를 이끌고 있는 제종윤(57) 화성소방서 향남119안전센터장. 그는 2020년 목표로 직원들의 무사고를 꼽았다. 김영운기자

전국에서 출동 가장 많은 화성소방서
올해 4천200건 출동·631건 화재 사고
대부분 진화 힘든 샌드위치 판넬 공장
불도 결국 소방관 몫… 항상 '안전' 강조

30년 잔뼈 굵은 화재진압대원
화재현장 누비는 대원들 지원 '솔선수범'
휴식·놀이로 편안한 센터 분위기 조성 노력
한때 팀장 시절 훈련 대신 탁구교실 열기도

올해 목표는 대원들의 '무사고'
전국 화재 4건 중 1건 경기도에서 발생
안전사고도 그만큼 많아 화성 근무 기피
더 많은 시민에 소방관 이야기 들려줄 것

화성소방서,중점관리대상 안전컨설팅 실시

+ - 프린트

용만중 기자 | 승인 2020.01.01 11:58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2월 26일부터 3일간 연말·연시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화성시의 중점관리대상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관리대상 안전컨설팅은 26일 메타폴리스, 27일 SRT동탄역사, 30일 용주사를 방문하여 겨울철과 연말·연시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성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은 ▲ 화재취약요인 현장확인 ▲ 소방시설 정상작동부 ▲ 재난대응 태세 확인 ▲ 안전관리 컨설팅 등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의 확인이 이루어 졌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 자율 안전관리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 dmilbo@naver.com

경인일보 2020년 1월 2일 목요일 006면 사회

'불의 고을' 화성, 작년 634건 전국 1위

도내 구급대원, 하루 평균 1849회 출동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활동 분석

2019년 경기도 소방관들은 바빴다. 화성 소방관들은 허리 한 번 펼 새도 없이 화마와 싸웠고, 수원 구급대원들은 밥숟가락 한번 입에 가져다 대기 무섭게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뛰쳐나갔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19 화재·구조·구급 활동 현황 분석 결과'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9천399건으로 전국(3만9천990건)의 23.5%를 차지했다.

서울은 5천861건(14.6%)으로 멀찌감치 뒤를 이었고, 경남과 전남이 각각 3천205건(8.0%), 2천642건(6.6%)으로 미미했다.

31개 시·군 중 화성시는 단연 '불(火)의 고을'로 불릴 만 했다. 화성시 화재 신고 건수는 634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화성은 689.5㎢로 서울(605.2㎢)의 1.4배 크기다. 넓은 면적에도 불구, 119안전센터는 8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화성에 이어 평택(514건), 용인(476건), 성남(473건), 김포(451건), 남양주(393건), 시흥(392건)이 뒤를 이었다.

구급 출동은 총 67만4천965건으로 유형별로 질병(26만7천312건), 사고부상(10만7천166건), 교통사고(4만7천997건) 순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1천849.2건 꼴로 출동한 셈이다. 구급 활동이 집중된 지역은 수원과 용인, 부천 등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19안전센터를 확충하고 출동차량 우선통행시스템을 추진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구급활동은 구급차 탑승 인원을 3명으로 늘리는 등 보다 전문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